

새로 나온 책

### 기묘한 태평양 전쟁의 내막

태평양전쟁은 기묘한 전쟁이었다. 질 줄 알면서도 '요행'을 바란 무모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했으며 열 배는 더 강한 적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을 했을까. 결과는 참담했다. 국토는 초토화됐고 300만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책은 태평양전쟁의 전사(前史)인 1931년 만주사변부터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가미카제 특공대 출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천황 항복까지를 다룬 논픽션이다.

원자 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얻어맞은 끝에 일본은 백기를 들었다. 대미 개전을 앞두고 고노에 총리는 '미국과 전쟁했을 때 얼마나 승산이 있느냐'고 연합함대 사령관에게 물었다. 해군의 총수였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대장은 "처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우세하겠지만 그 뒤는 장담할 수 없다"며 전쟁을 반대했다.

일본 내각은 근 1년 동안 대미 개전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였다. 일본은 독일의 승리에 편승해 한몫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끝내 버리지 못했다.



일본 제국 패망사

존 톨런드 지음/박병화, 이두영 옮김/권성욱 감수/글항아리

다. 전쟁에는 자신이 없지만 욕심은 버릴 수 없고 '독일이 있는 이상 어떻게 든 되지 않을까'라는 허황된 생각에 국가 전체의 판단능력이 마비됐다.

패전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전쟁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일본군으로 복무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일본군의 수많은 병폐와 모순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반면 일본 정치인들은 극우 세력들의 표를 의식하는 데 급급해 결핍하면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아 제 무덤을 판다. 일본은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전후의 수많은 '반쪽짜리' 반성조차 별다른 깨달음을 주지 못한 결과다. 혼란과 모순, 역설로 가득 찬 태평양 전쟁을 파헤친다.

1400쪽, 5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애덤 알터 지음/홍지수 옮김/부키



하루 평균 3시간, 깨어 있는 시간 중 4분의 1, 한 달에 100시간, 평생 11년 동안 우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그 어떤 일상 행위보다 길다.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때문에 인간의 평균 집중력 지속 시간은 2000년 12초에서 2013년 8초로 떨어졌다. 테크놀로지와 인터넷, 첨단 디지털 제품과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한 '행위 중독'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날같이 고발한다. 420쪽, 2만2000원.

'막말영상 파문' 운동한 한국콜마 회장

## “모든 책임지고 경영 물러날 것”

국내 최고경영자 처신문제 첫 사퇴



최근 직원 조희에서 '막말·여성비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물의를 일으킨 운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막말·여성비하 동영상' 파문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제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보복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가 이와 관련한 처신이 문제가 돼 사퇴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조희에서 참고 자료를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그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해온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저의 과오는 무겁게 꾸짖어 주시되 헌법에서 따 흘리는 임직원과 회사에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제 잘못에 대해 주신 모든

말씀을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회장은 7일 직원 조희에서 임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 속 유튜브는 문재인 정부의 대(對)일본 대응을 비난하면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콜마는 논란 이후 "감정적 대응 대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자는 취지였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민서 기자

## 하나의 트렌드 '제주에서 한 달 살이'

#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만난다

### 내게 맞는 호텔 찾기

####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밭길 닿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 경관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작품. 이곳, 제주에서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매 순간이 휴식이자 여행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주로 향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힐링, 경험, 여행 등 저마다 다른 목적이 마음 속을 부유한다. 그리고 이 제각각의 이유가 모여 탄생한 하나의 트렌드가 바로 '제주에서 한 달 살기'다.

제주에서의 한 달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척이나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매일 밤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 '숙소'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엔비, 호텔 등 여러 형태의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다.



해비치 제주의 뷔페 레스토랑 섬모라.

####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곳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이하 해비치 제주)는 제주를 여유롭게 즐기기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한다. 호텔 내 어디에서든 제주 바다를 눈에 담을 수 있다.

해비치 제주에는 호텔 288개, 리조트 215개 객실이 있다. 이 가운데 70%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로 이루어져 방 안에서 일출을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객실에서의 고요한 시간과 달리, 실내외 온수풀에서는 파도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특별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따뜻한 물로 이루어져 계절에 관계 없이 즐길 수 있다.

호텔이 보유한 36홀의 골프장 역시



해비치 제주의 윈터가든 야외 수영장.

/해비치 제주

#### 호텔 내 어디서든 바다 풍경 실내외 온수풀서 특별한 시간 한라산 배경으로 36홀 골프장 다양한 제주패키지 선보여

제주 바다와 한라산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제주의 '맛'도 놓칠 수 없다. 이곳에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세계 요리를 선보이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제주 향토 식재료를 서양식 조리 방법으로 풀어낸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등 9개 식음업장이 있다.

◆제주 한 달 살이' 안전하고 특별하게 해비치 제주는 한 여행지에 오래 머물며 문화와 삶에 깊숙이 들어가보는 장기 체류형 여행 트렌드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비치 제주는 제주에서 장기간 머물며 휴식과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제주 한 달 살이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간단한 취사 시설과 조리 도구를 갖춘 리조트의 스튜디오 트윈 객실에서의 투숙, 실내외 수영장 및 최신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제주 천연 암반수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승차 서비스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은 꼭 한 달(30박)이 아니어도 된다. 7박, 14박, 21박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월별로 변동된다.

해비치 관계자는 "호텔에서의 한

달 살기는 보안과 방법의 우수성, 일일 객실 점검 및 청소 서비스, 수영장과 피트니스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 등의 편의성으로 다른 숙박시설의 장기 렌트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제주 여름 '쿨'하게

해비치 제주는 푸른 바다와 오름 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과 민속 문화가 잘 보존돼 있는 제주 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여유로운 휴양뿐만 아니라 제주에서의 삶을 경험하기에도 좋다.

해비치 제주는 이 같은 위치적 이점을 살려 다양한 제주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한 달 살이 패키지'와 함께 진행 중인 '쿨 서머 데이 패키지'도 그 중 하나다.

패키지에는 ▲수페리어 객실 1박 ▲음료·맥주 등이 포함된 오름 버킷 세트 ▲자체 제작 비치 타월·피크닉 매트 ▲호텔 바에서 즐기는 칵테일 2잔 ▲조식 등이 포함됐다.

2박 투숙 시 호텔 내 베이커리 '마고'의 아이스크림 1개가 무료로 제공되고, 3박 시에는 오션뷰 업그레이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조식 대신 저녁 뷔페를 먹고 싶을 경우, 2인 8만 원을 추가 지불하면 된다.

권순범 해비치 제주 총지배인은 "제주를 대표하는 최고급 휴양 리조트로서 해비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제주를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호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이대목동병원-CJ헬로 양천방송, 동반성장 업무협약

#### 공유 가치 창출 목표

이대목동병원은 CJ헬로 양천방송과 지역 사회와 양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유 가치 창출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이선영 진료부원장,

현석경 간호부원장, 김한진 사무부장과 김성춘 CJ헬로 양천방송 대표, 김재준 기술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협조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인적, 물적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한다. 또한 CJ헬로 양천방송은 이대목동병원 이용 활성화

를 위한 홍보 방송을 제공한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CJ헬로 양천방송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이대목동병원의 홍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공동 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